

투데이

여수세계박람회 D-9

5만명 몰린 2차 여행연습도 줄서기 행렬

이면도로 주차난·순환버스 정체 곳곳 불만 전시관·기업관·문화행사 등은 관람객 찬사

부산을 사는 김모(45)씨는 여수 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박람회) 개막 10일을 앞두고 열린 2차 여행연습을 둘러보기 위해 2일 새벽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제관·한국관·아쿠아리움 등 8개 전시관은 예약을 통해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있는데, 이날 오전에 이미 모든 전시관의 예약이 완료돼 뒤늦게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들 전시관에 입장할 수 없었다.

줄을 서서 입장하는 국가관과 기업관 등도 관람객이 몰리다보니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

백상현(42·여수시 봉산동)씨는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는 걸 몰라 전시관 관람은 못하고 천막극장에서 난타 공연만 봐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박람회장 인근 곳곳의 이면도로 등은 주차된 차들로 북새통을 이뤄 박람회장을 오가는 순환버스가 제 속도를 못 냈고, 여수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박람회장을 알리는 이정표도 부족해 운전자들이 애를 먹었다.

반면, 전시관과 기업관, 문화행사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날 리허설이 열린 해상 문화공연 시설 ‘빅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조직위는 이날 ‘빅오’에서 해상쇼와 수상공연 등의 여행연습을 펼쳤다.

스카이라워, 디지털갤러리, 엑스포광장 등 특화시설에도 관람객들이 몰려 거리 문화공연 등을 즐겼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2일 공개된 롯데관의 4D 영상관. 지름 22m, 높이 9m의 원형 스크린에 4D 효과를 가미해 열기구를 타고 360도 회전하면서 여행을 하는 듯한 체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고속, 광주~박람회장 직통버스 운행

금호고속(사장 김상산)은 여수 엑스포 기간 동안인 오는 12일부터 8월12일까지 광주에서 여수엑스포 행사장까지 직통버스를 운행한다. 또 행사장 정문 옆에 임시매표소를 마련한다.

여수엑스포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이 버스는 광주중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오전 7시20분 첫 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 40분까지 20~70분 간격으로 매일 12회 왕복한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매주 토요일

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임시버스를 투입한다. 토요일 임시버스는 오는 5일 어린이 날부터 운행한다.

“열기구 타고 360도 회전하며 여행해요”

롯데관, 대형 4D 영상관 공개

여수세계박람회의 7개의 독립기업관 중 하나인 롯데관이 4D 영상관을 2일 공개했다. 이 영상관은 지름 22m, 높이 9m의 원형 스크린에 4D 효과를 가미해 열기구를 타고 360도 회전하면서 여행을 하는 듯한 체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롯데관은 부지면적 1960㎡(600평), 건축면적 1232㎡(455평) 규모의 3층 건물 높이(20m)로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독특한 외관으로 꾸며졌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 열기구가 솟아오르는 영상을 밖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롯데관은 이 영상관이 ‘세계 최초의 360도 라이더 영상관’이라고 설명했다. /www.expo2012lotte.co.kr (http://www.expo2012lotte.co.kr)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특급호텔 부족하다면 시장 관사 내드리죠”

세계한상대회 운영위 마음 움직인 강운태 시장 일문일답 열의

“해외 참가자들의 숙소가 문제된다면 광주시장 관사를 숙소로 제공하겠습니다.”

“2013 세계한상대회” 유치도시를 결정하기 위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PT)에서 ‘특급호텔이 부족하다’라는 운영위원의 지적에 대해 강운태 시장이 내놓은 해법이다.

강 시장은 내년도 한상대회 유치 도시가 결정되는 이날 ‘2012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운영위원들과 직접 일문일답까지 하는 열의를 보였다. 경쟁도시인 부산과 제주에서는 국공립 인사들만 참석한 것과는 달리, 시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강 시장의 행보는 이날 PT를 참관한 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투표가 마무리된 뒤 개표 과정에서 ‘광주가 된 것 같다’는 중간 보고를 들고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던 강 시장은 최종 개표 결과 광주시 2표, 제주 2표, 부산 1표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자 비로소 환한 웃음을 지었다.

광주시가 3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2013년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한 것은 강 시장의 열정과 집요함, 그리고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려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상대회 광주유치에 가장 큰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2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가운데)이 ‘2013한상대회 광주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결집물은 특급호텔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회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은 대회유치의 전제조건으로 ‘특급 호텔 750실 확보’를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대구 한상대회에서 특급 호텔이 아닌 곳에서 숙박한 해외참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재외동포재단은 숙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광주는 특 1급과 특 2급 호텔을 다 합쳐도 523실에 불과해 재단이 제시하는 기준에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실정이었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한상대회 개최 결정권을 가진 운영위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장을 직접 만나 광주 개최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무총

리와 외교부장관에게도 광주 개최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해외에 있는 30여 명의 운영위원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전화를 통해 광주 유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 참석하는 운영위원 세 명을 만나기 위해 빗길을 헤치며 밤 10시에 강원도 평창을 찾는 성의를 보였다.

이날 광주에 한 표를 던진 운영위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주 경제를 위해 한상대회를 유치하려는 강 시장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했다.”며 “광주에서도 한상대회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공항 항공기 결항 줄어든다

오늘부터 계기착륙시설 운영

광주공항의 항공기 결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광주공항 활주로 남서방향에 계기착륙시설(LLZ/DME) 설치사업을 완료, 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LLZ/ DME(Localizer/ Distance Measuring Equipment)는 활주로서 항공기까지 거리를 제공해 항공기가 계기에 의해서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광주공항은 지금까지 활주로 남서방향에 계기착륙시설이 없어 조종사

의 시계 비행으로만 항공기가 착륙했다. 따라서 안개나 비와 같은 악천후 때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결항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결항률이 1.98%에서 1.59%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주공항의 항공기 결항률 감소로 인해 연간 항공기 21대(1.9%)의 추가 운항 효과가 있어 승객의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0억9000만원이 투입된 계기착륙시설이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외화절감과 국산장비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말레이시아 환경정책 협력 MOU

광주시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시아 환경분야 정책교류와 관련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다국 투스탐 말레이시아 말라카 주(州)수상, 자이날 빈 아부 말라카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친환경 미래산업·폐기물 처리 및 생태복원 분야에 대한 양 도시 간 우호협력력을 주요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한편, 말라카시는 말레이시아 제2 도시로서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관광도시이다. /최권일기자 cki@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